

정부,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조속 응답” 촉구

北 이틀째 묵묵부답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이 이틀째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차 북한에 조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회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변이 아직 없다”면서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북 관문점 연락관은 이날 오전 9시 업무 개시 통화를 했으나 북한은 우리 측의 전날 회담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전날 관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7차 개성공단 남북간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전달했다. 북한은 이때도 별다른 반응 없이 전통문을 수령했다.

북한이 정부의 회담 제안에 바로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거부 의사가 확실하다면 시간을 끌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북한의 반응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북한의 무반응이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우리 정부도 추가 행동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에 마지막 회담을 제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으로 “북한의 태도가 변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답변 ‘데드 라인’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정 시간까지 답변이 안오면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계획에 대해 “이미 밝힌 유니세프를 통한 대북 지원 말고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른 대북 지원은 현재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순태 칼럼

국제 무드로 들떠 있어야 할 광주가 음울하게 가라앉아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가 확정되던 날까지만 해도, 광주는 온통 환호로 넘쳤다.

많은 시민들이 시청 문화광장에 모여, 대회 지원공공 시민 한마당행사를 하는 등 자축 분위기였다. 한 번도 국제대회를 치러본 적이 없고, 수영의 불모지에 가까운 광주에서 올림픽, 월드컵에 이어 세계 3대 메가급 스포츠대회를 유치했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202개국에서 2만 명이 참가하는 이 대회를 통해 민주·인권도시 광주가 새로운 모습의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정부는 광주가 메이저급 세계대회를 유치하게 될 것이라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험난한 대장정의 결과였다. 강운대 시장을 중심으로 유치위원회의 전방위적인 스포츠 외교가 얻어낸 자랑스러운 성과인 것이다.

조용히 있다가 돌발적으로 밝혔다는 게 궁금할 따름이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동영상을 조작, 도용이 드러났으나 이를 상영하여 유치가 성공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둘째, 정부는 2011년에 열린 대구 세계육상대회에 1737억을 지원했고,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5039억 지원을 확정하지 않은가. 그런데 왜 광주만은 국고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공문서 위조와 세계수영대회 유치, 성공 계획은 별개 문제로 봐야 한다. 세계대회가 광주만이 아닌 국가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 아닌가.

이번 사태로, 행여 강운대 시장에 대한 길들이기나 지역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 강운대 시장은 5·18 광주항쟁 33주년 때, ‘임을 위한 행진곡’ 국가기념곡 제정 과정에서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고,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5·18 왜곡에

별난 입주 기업인들 ‘정부 책임론’ 강력 성토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격앙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30일 최근 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체 입주기업 비상대책회의는 123개 기업 대표와 법인장, 임직원들의 ‘대정부 성토장’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정부가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더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이제는 정부 눈치 그만 보고 할 얘기는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른 기업인은 “6차 회담까지 가서 결렬된 것을 보면 정부에 공단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차라리 북한 근로자들의 승세를 잘 아는 기업인들을 협상에 보내주면 우리가 재발방지 보장을 받아 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 사태가 길어지면서 인내심이 바닥난 기업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목소리로 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실무회담이 재발방지 보장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의 현재 대 표 공동위원장 등 지도부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개성공단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는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음에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자제했다.

공개 발언을 하지 않은 기업인들도 2~3명씩 모여 최근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 보장이 없다고 하는데 북한이 회

담에서 제시한 합의 내용을 보면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화에 더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들은 정부에 신속한 실무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시민을 직접 찾아

가 공단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뜻을 모았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공단 정상화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입주기업 대표들의 릴레이 단식 투쟁, 국회·대헌문 앞 릴레이 3000배, 평화 대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세계수영대회, 정부 지원 나서야

이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정부 보증서 위조’ 사태다. 정부가 재정 지원 불가를 밝히는 한편 검찰에 고발, 광주시와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한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보증서 위조에 대한 정부의 권위나 후유증을 고려했을 법하다. 하지만 정부가 먼저 유치 성공을 함께 축하해 주고,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다음에 행정·법적으로 따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서류는 대한수영연맹과 대한체육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되었다.

세계대회 유치 과욕으로 사인이 위조된 것은 분명 잘못이다. 강운대 시장도 “부덕의 소치로 사과드린다”면서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원 불가 표명 이후 이렇다할 언급이 없다는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또, 납득이 안 되는 대목도 있다. 첫째, 7월 19일 개최지 결정은 5시간 앞두고 강운대 시장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직전, 정부가 문서 위조와 정부지원 불가를 터뜨린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4개월 전에 드러난 문제인데도

대해서도 강도 높게 대응했다.

이는 시장으로서 광주시민들의 역사인식과 보편적 정서를 대변했던 것뿐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도 유감이다. 지역이 어려울 때 국회의원들이 나서 이를 방어하고, 공동보조를 취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니겠는가. 한목소리로 광주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제정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은 어렵고, 후원기업유치도 기대할 수 없다. 2년 후에 열린 U대회 메인 스폰서를 담당할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고 광주 참여를 꺼려하게 될까 걱정이다.

이제는 정부와 지역이 아름다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호남 출대 등 지역적·정치적 문제로 몰고가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민들은 현 정부의 호남인사 소외, 아시아문화전당 법안외 추진 등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2019년 광주의 꿈을 대한민국 가운데 시장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직전, 정부가 문서 위조와 정부지원 불가를 터뜨린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4개월 전에 드러난 문제인데도

정가 라운지

이낙연, 2년내 임대료 증액 금지 법안 발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2년 안에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할 때도 불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김승남 ‘유전자변형 생물체 관리법’ 발의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30일 자연환경에 방출된 유전자 조작작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만 정부가 관리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개정해 비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전직공무원모임 보조금 금지

정부, 지자체 행정경비 칼질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일·속직비, 여비 등 행정경비를 줄이는 자구노력을 하라고 주문했다. 전직 공무원친목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광역·기초 등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는 의장과 부의장에게 1인당 연 250만원, 일반의원에게 20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일·속직비는 하루 5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담양군 월산면 공장 대지 4882㎡(1477)건평 150평 대출 2억 법인이전함. 2억 7천만원
- 계림동 구 호텔건물 대지 542㎡ (164)건평 396㎡(1200) 목욕탕,찜질방,객실38개 등과 유흥시설 등 18억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 411㎡ (124)건평 327㎡ (99) 공시지가 2억 8200 매도 2억 9천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 (97)건평 1235㎡ (363) 건물 2층 공시지가 14억 5천 매도 16억 5천
- 월산동 목욕탕,유흥,투룸,대지 508㎡ (153) 건평 741평 병원,요양시설 등 적합 16억 5천
- 대인동 동부소방서부근 대로변 대지 694㎡ (210) 건물 158평 광주은행본점 부근 공시지기에 매도 11억 6천
- 북구 도로변 대지 624㎡ (189) 건물 421평, 병원,사육등 적합 은행 12억 매도 13억 5천
- 신안동 한방병원 대지 645㎡(195) 건평 372평 감정 16억 5천선 대출 11억 매도 13억
- 신항동 대지 301평 건평 715평 회사사육,병원노인시설 등 적합. 은행17억 보증금 4억 3천 월 1650만원선 매도 35억

투자·나대지

- 동구 수기동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83개 허가 주택기금 12억 각종협업가능 매도 8억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점 관리지역 2587평 공장,청고 등 적합 대출 1억6천 매도 2억 3천
- 함평군 월이면 13024평 전원주택개발적합 6억 8천
- 두림동 2중주거지 47평 대출 5천 매도 6천
- 광주와 담양을 사이 4차선 국도점 2111평 주유소,가스충전소 허가남 대출 10억 매도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 5가 광주고용센터 옆

태영부동산공인중개사

★매 매★

- * 영암 도포면 성산리(아산) 임야44,470㎡ 계획관리지역(과수원,전 개간적합)매매가4억원
- * 남구 방림동 순환도로점 지하1층 지상6층 대지344㎡ 건평1576㎡ 매매가11억원(병원적합)
- * 동구 용산동 도시철도공사 뒤편 임야 32,231㎡ 매매가㎡당 4천5백원
- *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내 원룸촌 나대지 407㎡ 3억 2천만원 (고시원, 유흥신축적합)
- * 화순읍 홍리 공인빌라 4층 132㎡ 매매가 1억5천만원
- * 백운동 서강중 인근 2층상가주택 대지137㎡ 1층점포3칸 2층주택 임대중 매매가1억7천만원
- *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후문 맞은편 지상3층 상가주택 대지 249㎡ 건물474㎡ 1층점포3곳 임대 2.3층 주택4곳임대 (용8천 전1억2천만포함) 매매가7억7천만원

★임 대★

- * 동구 운림동 중심사 버스종점 이웃도어 매장 뒤편 2층 레스토랑 198㎡ 톨원비 보증금3천만원 월70만원 시비권있음
- * 남구 봉선동 삼익사거리 인근 2층 노래방225㎡ 6개(금) 현성업종 보2천만원 월1백70만원 시비권있음
- *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 입구 지하 노래하는 호프 7080 현성업종 132㎡ 보증금1천만원 월80만원 시비권있음
- * 서구 벽진동 순환도로 서광주역 진입 도로점 대지1270㎡ 건평 198㎡ 보5천만원 월200만원 시비권있음 (식당적합, 모던업종가)

부동산 매도,매수 물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법원경매 물건 상담전문

상담 번호 010-6636-0114
010-3627-3896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장대리업체(법원인가)
상가 주택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 동구 충장로5가 중심상업지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감정가43억 최저가24억
- ▷ 광산구 운남동 2중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440㎡ 감정가5억 최저가3억5천만
- ▷ 광산구 신가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감정가16억9천만 최저가14억8천만

단독주택

- ▷ 서구 화정동 2중주거2중주택 대지159㎡ 건평184㎡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 ▷ 서구 화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감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2천만
- ▷ 광산구 송정동 2중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지족동 준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1379㎡ 감정가15억 최저가8억3천만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지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21억
- ▷ 담양군 창평면 단촌창고,사무실 토지3279㎡ 건물1560㎡ 감정가4억7천만 최저가3억2천만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도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10층) 보25억. 월6500만원 매130억원
- 광산구 수원지구(5층) 보2억천.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항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 금호동 계획도로점 자연녹지 3,400㎡ 매32억원 (병원, 초.고. 대형기. 정.예. 예식장, 투지회차)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사육)
- 치평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사육,전시장)
- 쌍촌동 운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725억 (사육,전시장,병원,도시형)
-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010-3753-0033

공 장 매 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물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흥농공단
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